

LG, 美 대형 건설사와 독점 계약... B2B 생활가전 점령 속도

美 센추리 커뮤니티와 공급 협약
냉장고·세탁기 등 수만 채 전량 납품
'씽큐 AI·씽큐 업' 서비스로 차별화
빌더 사업 매출 전년비 70% 이상↑
레나 이어 두 번째 대형 빌더 성과

LG전자가 미국 건축업체에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B2B(기업 간 거래) 생활가전 사업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의 대형 '빌더(건축업체)'인 '센추리 커뮤니티'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오는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가 미국에 짓는 수만 채의 신규 주택 전부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고효율·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LG전자의 빌더 전담 영업 및 서비스 조직 'LG 프로 빌더'가 주축이 돼



LG전자가 미국 대형 빌더 '센추리 커뮤니티'와 생활가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센추리 커뮤니티가 미국에 짓는 모든 주택에 고효율 및 AI 가전을 공급하게 된다. /LG전자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주택 구조, 지형 및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가전을 제안 및 공급한다.

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고효율 가전으로 집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I 플랫폼 'LG 씽큐 AI' 기반의 서비스로 차

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LG 씽큐 AI'의 핵심 서비스는 ▲기존 가전에 새로운 AI 기능을 지속 업그레이드 하는 '씽큐 업' ▲고장이나 이상징후 등 제품 상태를 손쉽게 관리하는 '씽큐 케어'다.

'센추리 커뮤니티'는 미국 전역에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대형 빌더로, 미국 내 상위 10대 빌더 중 하나로 꼽힌다. 빌더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범위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 빌더

'레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빌더와의 파트너십 성과로, LG전자의 B2B 생활가전 사업이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LG전자는 ▲높은 브랜드 신뢰도 구축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빌더 전담 영업 및 서비스 조직 강화 등 다방면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결과 올해 상반기 빌더 사업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한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동기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LG전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 삼아 미국 빌더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정규황 부사장은 "LG 가전의 뛰어난 성능과 품질, 브랜드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 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미국 B2B 생활가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美서 안전·상품성 입증... 판매량 역대 최대

8월 미국 판매 17만9455대 기록
전기차·친환경차 모두 월간 최대
아이오닉5 충돌사고서 생명 지켜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와 18개월 쌍둥이 목숨을 지켰다.

바로 미국서 발생한 차량 대형 사고에도 뛰어난 안전성을 갖춘 현대차·기아 덕분에 생명을 지킨 탑승자들의 이야기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8월 미국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차량의 뛰어난 안전성과 우수한 상품성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

아는 지난달 미국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7만9455대를 판매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친환경차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인 4만9996대로 전년 대비 51.8% 증가했다. 전기차도 1만6102대 팔리며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9월 말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고, 현대차·기아 차량의 안전성과 상품성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8월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은 현대차 아이오닉5(7773대)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5는 최근 실제 고객의 경험담과 충돌 평가를 통해 입증된 안전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세인 배럿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SNS 이용자는 본인의 후방 충돌 사고에서 아이오닉5가 18개월 쌍둥이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후면 부가 파손된 아이오닉5와 온전한 카시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며 "아마 다시 아이오닉을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오닉5는 지난 3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IIHS 충돌 평가에서 아이오닉5 등 14개 차종이 TSP+ 등급을 받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의 차량 안전성은 과

거불의 사고에서 탑승객을 지켜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 중 차량이 여러 번 구르며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으나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에는 현대차 아반떼N을 탑승한 커플이 미국 협곡에서 91m를 굴러 떨어지고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SNS 및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오른쪽)과 가우탐 크리슈나리아 KBR 최고기술책임자(CTO)가 16일(현지시간) 포르투갈에서 열린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수산화리튬 회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폐배터리 재활용 수출 KBR과 글로벌 공략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리튬·배터리 원소재 컨퍼런스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 KBR과 BMR 기술 라이선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BR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3만4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연매출 약 70억 달러를 기록하는 에너지·석유화학·국방·산업 인프라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PureLi)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원관희 기자 wkh@

“경제협력 넘어 지속가능 미래해법 모색” 현대차·기아, 스마트공장 무선통신 기술 공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위 공동회의 참석
산업안전·재난 대응 의제 첫 논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 양국이 경제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 상생과 산업안전 재난대응까지 핵심 협력 분야의 외연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제46차 공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공동회의에 참석, ‘한·호주의 산업·혁신·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양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연대를 다졌다.

이번 공동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인공지능(AI) 생태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7일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혁신을 비롯해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의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을 특별의제로 상정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등 양국 협력 분야의 외연을 한층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안전 및 재난 대응 세션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와이파이7 로봇 운영 효율성 강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수백대에 달하는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2026년 국내외 공장에 와이파이7(WiFi-7)을 도입하기 위한 통합형 단말기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와이파이7은 와이파이6E보다 채널 대역폭이 2배로 확대되고 변조·스트리밍 방식 등을 개선해 속도가 기존보다 최대 4.8배 빨라질 수 있는 차세대 표준이다.

와이파이7이 도입되면 로봇 수백대가 투입되는 현대차·기아의 생산 공정이 보다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차·기아 공장에 있는 다양한 생산 로봇은 물론 공장 내에서 부품을 운반하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무인운반차) 및 AMR(Automate

d Mobile Robot·자율이동로봇)과 같은 물류 로봇, 위험 요소를 탐지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SPOT)' 등 무선 통신 기반의 다양한 첨단 로봇의 운영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와이파이6와 프라임 5G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연결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과 미국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 A)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로봇들은 단순히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동선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안정화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단말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핵심 기술을 제공해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